

민주당 대선공약, 전북은 재탕 사업 뿐인가?

정읍 의료·관광, 고창 교통 대선공약

전북 공약 발표 초읽기

공공의대·제3금융 등

전북 신규 통큰사업 없을 듯

D-14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조만간 이재명 후보의 전북도 단위의 대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공약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핵심관계자는 19일 '전북도 차원의 대선 공약은 중앙당과 협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북 관련 △올림픽 유치 지원, △전주금융도시 지원 △공공의대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서 전복도와 시·군으로부터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는 각종 현안 및 숙원 사업 등을 접수했고, 시·군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약 사업에 대해선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군이 개별적으로 공약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밝힐 '전북 주요 대선 공약'에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 관련 직간접적인 사업과 전북도가 수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공공의대 설립,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포

함될 것으로 보인다.

2036년도 하계 올림픽 지원사업은 전북이 올 하반기에 IOC에서 전북이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전북도가 올림픽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전주 중심의 고속도로, 철도건설과 태권도원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다.

또 오랜기간 숙원사업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공약 등에 반영되었던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지원', '공공의대설립',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의 사업도 있다.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제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측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는 별개로 전북에 유치된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투자 전문기업인 한국투자공사와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국내 7대 공제회의 본사 유치도 전북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전북이 농업중심의 혁신도시로 각종 농업 기관이 유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업 중심의 금융기관인 농협중

앙회의 전북 유치도 대선 공약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은 남원의 서남대 의대 폐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의 유치, 대전-남원-여수간 신규 KTX철도망 설치, 서해안권 철도 완결, 전북권 광역도로 개설 사업 등이다. 이밖에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새만금 국가정원조성,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피지컬 AI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이다. /서울=김영목기자



보리 광역살포기 방제

전북지역 5월은 맥류 종자 생산의 핵심 시기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국지성 강우가 예상돼 철저한 병충해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전북농기원>

전주 촬영 드라마 '당신의 맛', 넷플릭스 달구다

12일 방영 이후 '세계인 주목'

공개 사흘만 글로벌 2위 등극

전북자치도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시한번 전주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전체 분량의 80% 이상이 전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당신의 맛'이 공개 사흘만에 넷플릭스의 오늘의 드라마 TPO10 시리즈 중 1위, 글로벌 2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ENA 채널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당신의 맛'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에서 62회차 촬영(80% 이상)을 진행했으며,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에 '전주'라는 지역명을 사용했다.

특히 전주남부시장과 청연루, 노송광장, 전주 대표 가맥과 콩나물국밥 식당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전주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주인공이 운영하는 식당의 외부는 전주한옥마을 내 상가건물에서 촬영이 이뤄졌고, 식당 내부 공간은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이처럼 전주는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촬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영화·드라마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답게 다양한 드라마와 영

화의 촬영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전주는 전주한옥마을과 전통성당, 경기전 등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과 경관을 배경으로 한 로케이션 촬영이 가능하고,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스튜디오 촬영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해마다 100여 편의 작품이 전주와 전북에서 촬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주는 드라마와 영화 찍기 좋은 도시라는 입소문이 많이 퍼져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재근 기자

더민주,윤준병 의원기획반영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방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읍·고창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을 지난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정읍·고창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정읍시 지역 공약으로는 △정읍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추진,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원,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지원, △정읍경찰서·정읍우체국 이전 부지 개발 등 도심 재생 활성화 지원, △국책 연구기관 기능 고도화 등을 공약했다.

고창군 지역 공약으로는 △서해안철도(새만금~고창~목포) 단계적 연결 추진, △노을대교 조기 착공 및 연결도로 확장 추진, △국책 카누슬라럼경기장 조성 지원, △RE100 국가산업단지 조

성,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연장 추진(고창IC~고창 상하법성IC) 등을 내세웠다.

이번 공약은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의원이 정읍·고창 지자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직접 공약 기획에 참여해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수석본부장직을 맡아,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공약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써왔다.

윤 의원은 "이번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정읍과 고창의 미래 먹거리 산업, 관광자원 개발, 환경 복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이라며, "현장에서 수년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온 과제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지역공약으로 담겨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큰 보람을 동시에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남원 주요 현안, 대선 공약 반영

李 광역 교통망·공공의대설립

金 6차건설계획·스포츠훈련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각 정당에서는 지역공약을 구체화 발표하고 있다.

주말 각 정당에서 발표한 지역공약에는 남원시의 주요 현안들이 반영되며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남원시 공약은 5개로 '국토 중부권·남부권 연결 광역 교통망 체계 개선 지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적극 추진',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지원', '남원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지원'이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주요 국도·국지도 제6차 건설계획 반영', '남원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정상 추진', '남원 ECO스마트팜 산업지구' 등이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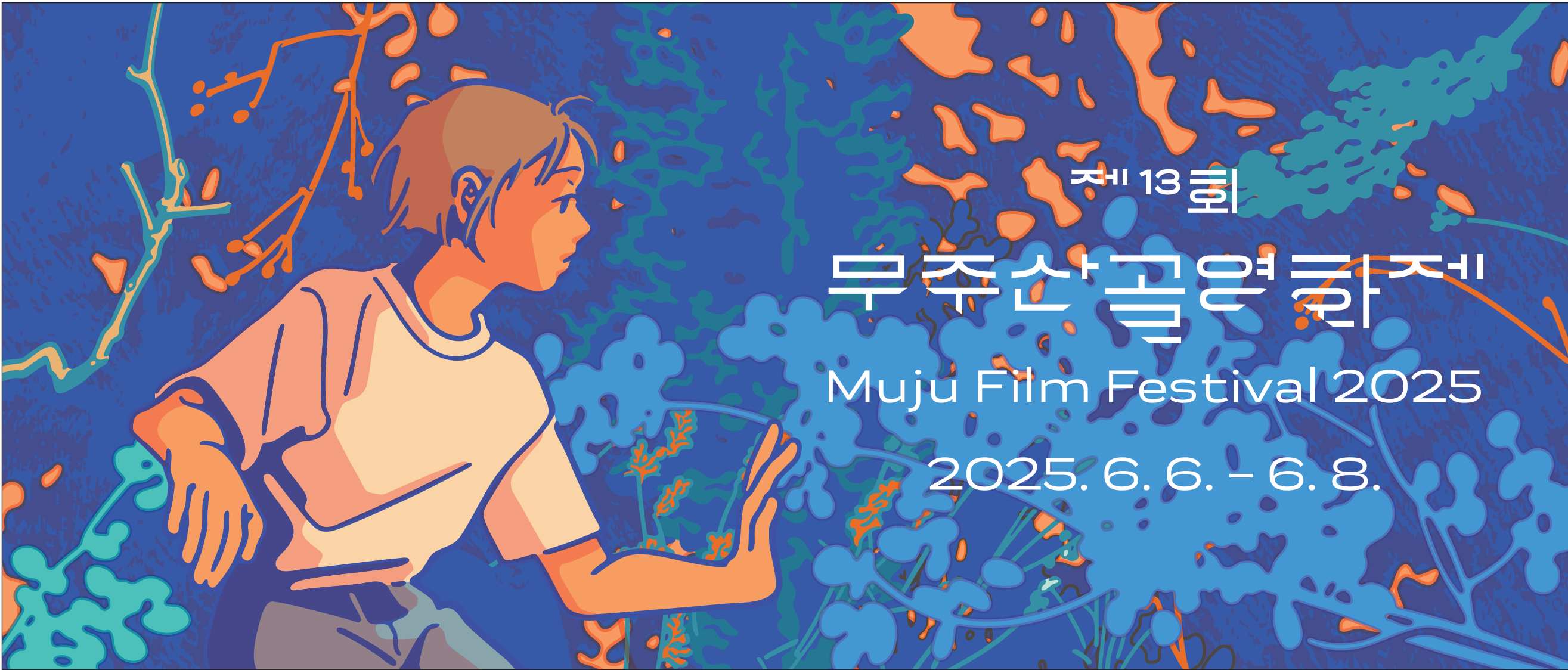
나머지 정당과 후보측에서는 지역 공

약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원시에서는 공약 발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주요 현안들의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대선이 확정된 이후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대선공약 사업을 발굴하고 정당별 지역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정당별 지역공약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 등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에 대해 충남 아산시 공약과 중복됐으나, 남원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유지 개발이라는 경제성 등 타당성을 앞세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공약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으나, 지금부터는 이러한 공약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재명 50.2% 김문수 35.6%·이준석 8.7%

1509명 대상 조사 가상 양자대결서도 이재명 압승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5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를 기록했고, 그 외 후보 1.1%, 지지후보 없음 3.1%, 모르겠다 1.3%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 주 대비1.9%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95.8%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89.3%,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87.6%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28.3%, 김문수 26.4%, 이준석 6.7%로 조사됐다.

계층별로 이재명 후보는 전 주 대비

인천·경기와 PK, 충청권, 60대, 40대, 20대에서 주로 하락한 반면, TK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상승했고, 김문수 후보는 전 주 대비 PK와, 충청권, 여성, 60대, 70세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재명 49.1%, 김문수 39.4%, 이준석 7.7%를 기록했고, 대구·경북(TK)에서는 김문수 44.9%, 이재명 43.5%, 이준석 9.0%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후보 단일화 추진에 따른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경쟁후보에게 크게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는 54.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 후보의 40.4%에 비해 오차범위(±2.5%P)를 넘어서는 13.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또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4%, 이준석 후보는 30.0%를 무려 21.4%포인트차이로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4%, 국민의힘이 34.2%, 개혁신당 5.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노홍석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 취임

“도민 체감 변화 실행 정책 실현” 강조

전북특별자치도 제45대 신임 행정부지사에 노홍석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9일 취임했다.

노홍석 부지사는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간부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분청 내 각 부서를 순회 방문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취임사에서 노홍석 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전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행 중심의 정책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역교통망 구축, 올림픽 유치, 국정과제 반영 등 주요 현안은 속



노홍석

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장과 지방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실행력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홍석 부지사는 “정책은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이 있다”며,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노홍석 부지사는 전북 일일 출신으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균형발전 및 자치행정 분야에

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특장차 산업 전방위 지원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미래차 산업 핵심 육성

전북자치도는 국내 최초로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특장차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설계·제작·검사·인증·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전주기를 집적화한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 최초로 실현함으로써, 지역 기반 산업을 첨단화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비전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김제 백구면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로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 원, 10만 평)를 조성했고,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 원, 10만 평)를 추가

확보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 원)를 조성해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생활환경 공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특장차 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 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 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 원)를 2026년까지 구축해 생산, 인증, 튜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췄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도는 시군구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 지원사업(14억 3천만 원)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거점공간 조성(60억 원)과 연계해 핵심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장차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



업(220억 원)을 통해 5톤급 전기소방차의 안전제어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도내 특장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끝으로 특장차 산업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도 매년 확대 개최되고 있다.

2023년 제1회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제3회 미래특장차 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시승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지역 축제형 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중기부·과기부·기재부 방문 스타트업 파크 등 사업 설명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세종을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안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세종에서 새만금 개발,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전북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총 19개 사업을 선정해 각 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중기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 사업을 설명했다.

과기부 면담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 원) 등 첨단 R&D 사업을 설명했다.

예산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에는 △새만금 내부개발(1,800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85억 원) 등 12개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투자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금이 바로 국비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현안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주재, 전북특보단 출범

“대동세상 심장 전북 다시 한 번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은 19일 오전 11시 전북도당에서 '전북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수여식은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안호영 수석부단장과 박희승 전북특보단장도 함께 참석해 전북특보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 전북특보단’은 도내 14개 시·군 조직특보를 중심으로, 13명의 직능특보가 전문성을 보완했으며, 19명의 정무특보단이 지지 기반을 더하며 총출발하고 탄탄한 선거조직 체계를 갖췄다.

또한 이돈승 지역연론특보단장을 포함한 28명의 총괄특보단도 함께 임명되어 전북지역 특보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전북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베타목이자, 역사의 전환점마다 앞장서 온 주체였다”며, “12·3 내란을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보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부단장은 “전북 대표주자인 특보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특보단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희승 전북특보단장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이 특보단의 목표”라며, “이는 전북인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전북특보단은 앞으로 정책 제안, 공약 홍보, 대국민 소통 등 선거 전략의 실질적 실행까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전북, 도세 감면으로 주택시장 회복 유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미분양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감면 혜택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감면 조례 개정은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가지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

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는 실질적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

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복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기술·시장 전방위 지원으로 SW강소기업 육성

제품화·시장진출 전주기 지원 40개사 통합 프로그램 추진 R&D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소프트웨어(SW) 강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온라인으로 공고된 이번 사업은 도내 SW강소기업의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장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2가지 분야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연구개발(R&D)에서 마케팅까지 기업 수요 전반을 통합 지원해 실효성을 높인다. 첫 번째는 ‘우수아이디어제품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다. 전북 SW강소기업 40개사 중 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총사업비의 25% 이상은 민간 부담금(현금·현물)으로 매칭해야 한다. 기술료는 지원금의 10%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납부 시 최대 40%까지 감면

되며, 청년 인재 1인 이상 신규 채용도 권고돼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두 번째 ‘SW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R&D 기획부터 해외 진출,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SW강소기업 40개사 중 12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R&D 과제기획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 △홍보 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디지털 역량 교육 등이 포함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rmd.jb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 이후 서류 검토와 전문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6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SW강소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고, 기술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전북이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신협 ‘햇살론 플러스’로 서민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가산금리 최대 2.5%p 이내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9일부터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침에 따라 신협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대상으로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로서,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포인트(p) 이내의 가

산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신협중앙회 조영록 금융지원부장은 “햇살론 플러스가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데이터로 여는 새만금 미래’ 창의·역량 모은다

새만금청, 공공데이터활용대회 아이디어기획, 분석·생산 부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19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정책을 주제로 한다. 또 국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집해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분석·생산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는 새만금청 누리집 또는 온라인품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심사는 참가작의 독창성, 구체성(체계성·논리성·객관성), 적용가능성(정책적용 및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 14팀(최우수 2팀, 우수상 7팀, 장려상 5팀)이 선정되며 총 상금 870만 원이 주어진다. 새만금 개발과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새만금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신선한 시각과 데이터를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에 기반한 데이터 생산물을 발굴해 미래 새만금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새만금개발청 은 19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새만금개발청>

만들어 가겠다”며 “새만금과 데이터 기획·분석에 관심과 재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의료계획 기초 마련

7월말까지 도민 면접조사 19개 영역 169개 문항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건강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도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2,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며, 시군 보건소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책임대학교에 위탁해 수행한다. 표본가구는 통계적으로 무작위 추출되며,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해 건강수준과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추진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걷기 실천율) △식생활(아침식사 실천율, 영양표시 활용률) △만성질환 이환(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혈압·당뇨병 진단 및 치료율)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배출,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다. 도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6년 보건정책 수립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 우수 자원 찾아 귀리 산업화

31개 나라 490자원 평가 귀리 수요 따라 활용 제고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31개 나라에서 수집한 490자원을 대상으로 20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육종가, 식품 산업체, 농업인 등이 참여해 귀리 유전자원을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농업 형질을 평가한다. 최근 귀리 육종목표와 주요 형질 정보를 소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귀리사업단의 귀리 재배, 가공 현황도 공유한다. 또 미국 농무성에서 도입한 국내 미보유 쌀귀리 유전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우수자원이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 미국 농무성에서 국내 미보유 쌀귀리 300여 자원과 조단배, 베타글루칸 등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도입하는 등 쌀귀리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귀리는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당뇨병, 대장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리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전체 귀리 유전자원은 9,500자원이며, 이 중 쌀귀리는 110여 자원이다. 쌀귀리는 겉귀리보다 껍질이 쉽게 제거돼 가공에 유리하고 향산화 성분이 많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욱 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로 귀리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 ‘국민 만족 청렴 정책’ 고도화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 청렴 해피콜 도입 등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기관장과 주요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 해피콜 도입·운영 △공공

재정 부정수급 점검 △민원 대응과 홍보 공간 조성·운영 △내대·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노조 간 청렴 서약 △적극행정 활성화 △고위직·신규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플로깅(환경보호 활동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행사)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시행 △간부·직원 간 소통 활성화 △기관장의 임무기업 등과 청렴 현장소통 △청렴문화 및 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반부패와 청렴은 조직 전체의 기준이며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전직원과 함께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고창 꿈끼아동센터 ‘희망의 공부방’ 개소

‘JB희망의 공부방 제199호’ 환경개선·책걸상 교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9일 고창군 흥덕면 소재 꿈끼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고창군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난 2019년 개소한 공립형 꿈끼지역아동센터는 총 2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학원 하나 없는 농촌지역에서 아동 및 보호자에게 든든한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됐던 화장실을 개보수 했으며 오래된 책상과 의자도 교체했다. 또한 아동들에게 집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간에 바닥매트, 전자동차양 등을 설치해 아동들의 원활한 학습



및 체험 활동을 도왔다. 오픈식에는 고창군 심덕섭 군수, 꿈끼지역아동센터 이은미 센터장,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 이미영 고창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상익 부행장은 “단순한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센터에서 그동안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 어르신 만학도에 ‘확대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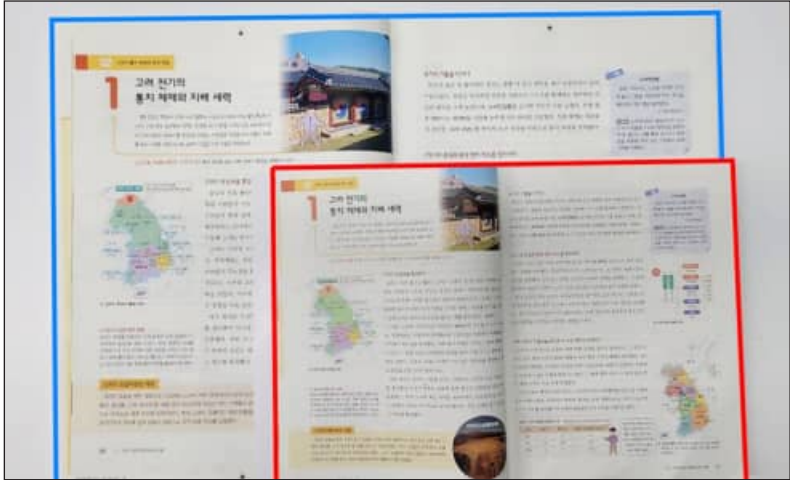
A3 크기로 확대 제작
학생들 직접 건의로 추진

익산시가 만학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맞춤형 확대 교과서’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고령의 늦깎이 학생들을 위해 A3 크기로 확대 제작한 교과서를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고령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지난달 17일 ‘함열여자고등학교 시니어반 간담회’에서 만학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당시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 공부할 때 눈이 피로하다”며 확대 교재 제작을 요청했다.



기존 교과서와 확대 교과서 비교 사진

<사진=익산시>

시는 이에 즉각 대응해 18종의 교과서에 대해 각 출판사와 협의 후 PDF 파일을 확보, 자체적으로 A3 크기로 확대 제본을 완료했다.

확대 교과서를 받아 든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학습자는 “이제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여 공부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다.

시는 이번 확대 교과서 제작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저시력 교과서’를 만학도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브레이킹스쿨, 비보이 유망주 탄생

강아라 선수 국가대표 선발
전청소년비결부문 3위 차지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전주브레이킹스쿨 출신이 비보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입상했다.

비보이문화학교인 전주브레이킹스쿨은 전주시가 비보이 꿈나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브레이킹스쿨’ 출신 강아라(비결, 14세) 선수가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2025 브레이킹K 국가대표 선발전 1차대회’에서 청소년비결 부문 3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KFD)이 주관하는 ‘브레이킹K’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초·중·고등부 비보이와 비결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공인 국가대표 선발대회로 1, 2차 대회 우승자와 합산 랭킹 상위권 남, 여 선수들이 연



말 파이널 대회를 치러 일반부 남, 여 각 3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하게 된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일반부 선수들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며, 파이널대회 청소년 부문 결승진출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성해 국가대표와 합동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전주브레이킹스’ 교육을 통해 발굴, 육성된 비결 유망주로 대한민국 브레이킹 국가대표 초대감독을 역임한 ‘라스트포원 조성국 대표’로부터 2023년부터 1년 6개월간의 전문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번 브레이킹 K시리즈 1차 대회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재근 기자

예수병원, 러시아 의료진 대상 선진 진료 시스템 소개

외과진료시스템 견학병원지정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러시아 의료진 전북 초청 팸투어에 참여했다.

이번 팸투어는 러시아 최고 국립의과대학인 세체노프스키 국립의과대학교

(모스크바 제1국립의과대학교)의 의료진 및 헬스케어 전문가를 전라북도에 초청해 한국의 앞선 선진 의료 기술과 지역 웰니스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수병원은 이번 팸투어에서 외과 중심의 진료시스템 견학 병원으로 지정됐다.

예수병원 외과 전문 의료진들이 참석

해 러시아 의료진에게 예수병원 첨단 진

료 인프라와 진료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또 예수병원이 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러시아 측에서 현지 도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재활센터, 응급의학센터 등 예수병원이 운영중인 진료과를 대상으로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실

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예수병원은 그동안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탄자니아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의료선교허브병원으로서 지평을 점점 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서거석 교육감, “성인 학습자들 꿈 응원합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서
학생 150여 명 대상 공감토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배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서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의 꿈,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감토크는 이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뒤늦게 배움

의 길을 선택한 성인 학습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과 사회의 반응, 미래의 꿈 등을 얘기했고, 서 교육감은 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서 교육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는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전현기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제게 큰 힘이 됐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건강 유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등을 타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젊어서 운동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70대 학생에게는 “공부, 동아리 활동, 젊은 세대와의

친구 등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한 없이 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립여성중고에 △맞춤형 책걸상 △급식기구 및 체육기구 등을 지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스마트 외교 최전선 찾아 현장 체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JBNU 글로벌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주요 외교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탐방에는 전북대 학생 4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돼 다문화적 시각에서 한국의 스마트 외교를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는 전북대 KF 공공외교역량강화대학 사업단(단장 신보람 교수)과 한국수출입은행 EDCF 평가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팀(책임자 문경연 교수)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정부 유상원조(EDCF) 사업의 실무자들로부터 현장 경험을 듣고, 동문인 황기연 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의 환영사 및 설명을 들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산업은행의 역사와 글로벌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금융 분야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전북대 문경연 교수(국제학부)는 “이번 탐방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원광대 사회복지경영학과, 정읍사회복지협회 교류

원광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학생 150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정읍 사회복지협회를 찾아 지역사회의 복지 현황을 살피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협회 방문에 이어 학생들은 정읍 내장산 조각공원과 생태공원으로 이동하여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며 즐겁고 의미 있는 추억을 쌓았다.

오후에는 유선숙 교수와 한전설 지도교수의 인솔 아래 정읍의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힐링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학과 전체 학생 중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3학년 A반이 89%라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며 학업과 현장 경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3학년 A반 과대표인 차지혜 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원광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번 문화 탐방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코딩' 참여자 모집

정읍시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책 읽기와 코딩 교육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코딩'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사서와 함께 책을 읽고 짧은 글쓰기나 단어 빙고 게임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진행한 후, 해당 도서의 내용과 연계해 전문 코딩 강사의 지도로 책 읽기와 코딩을 동시에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10명이며, 오는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중앙도서관 내 미래창작소에서 운영된다. 참여자 접수는 20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모현도서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모현도서관에서 오는 6월 한달간 실버세대를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색과 향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된 모현도서관이 노년기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다양한 감각 자극 활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총 4회에 걸쳐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백드롭 페인팅 △향기로 기억을 떠올리는 컬러 아로마 향수 만들기 △겨울에 비친 나를 관찰하는 겨울 그림 그리기 등 시각·후각·촉각을 활용한 체험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시민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오는 22일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모현도서관 종합자료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대조천 하류부 임시저류지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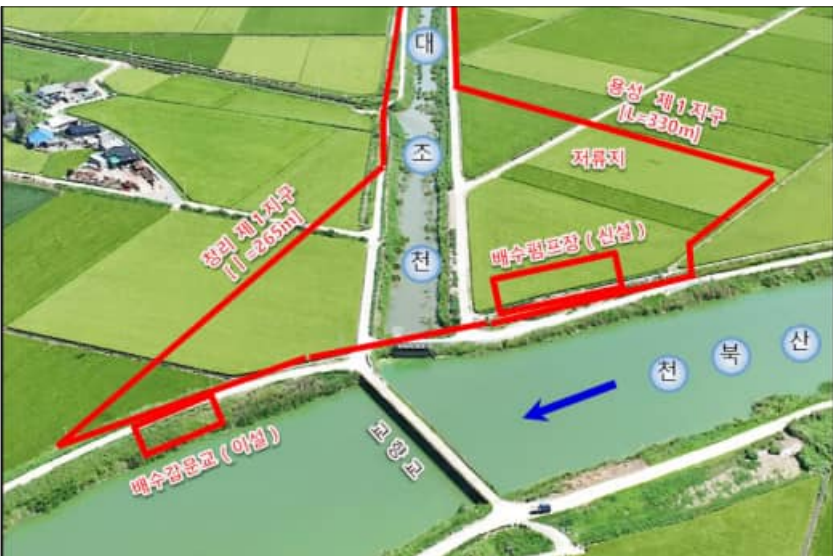
총 548억 원 투입 우기철 전 조기 준공 목표

익산시가 대조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우기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조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류부 임시저류지 공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조천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선정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48억 원(국비 274억 원, 도비 109.6억 원, 시비 164.4억 원)을 들여 산북천 합류점에서 초상제까지 4.25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제방 보강(9.19km), 교량 재가설(17개소) 등으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익산시는 우기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조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류부 임시저류지 공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착공 시기가 2026년으로 예정돼 우기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류부 임시저류지 조성사업' 우선 착공을 결정했다. 하류부 임시저류지 조성사업은 약 6만 8,000㎡ 규모로, 총 26억 원이 투입

된다.

시는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토장 확보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철 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5억 규모 기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저금리 대출우대보증 등 지원

정읍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

한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업을 보유한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원 자금을 이미 수혜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여기에 더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 금리에서 2.0%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까지 제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나,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나, 총 25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3곳 신규 1곳 선정

지역 경제 이끔 성장동력 기대

군산시는 19일 지역경제를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3개 사와 강소기업 1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군산시의 대표 산업육성 정책이다. 올해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명일잭업해양(주)은 1998년 설립 이래 잭업(JackUp)바지선을 전문으로 설계·제작·판매하는 해양 특수 구조물 전문기업이다. 잭업(JackUp)바지선은 바지선(작업장)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잭업(JackUp) 시스템을 갖춘 바지선을 말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잭업바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인 래깅핀인 타임 잭킹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제품 설계 인증(PDA)'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명



일잭업해양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유)미광기획은 디지털 광고·전시 제조, (우)엔알비는 이동식 모듈러 건축물, (썬)어는 가능성 침대·매트리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다.

군산시는 2019년부터 도내 최초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도입해 지금까지 유망 강소기

업 30개 사, 강소기업 5개사를 발굴하여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제품 고급화,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강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라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군산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총력 당부

“시민 생명·재산 보호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은 19일 오전 영상 간담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따른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공사장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낙하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강력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강풍을 동반한 기상 상황이 잦으므로, 건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가설 구조물, 광고판, 비닐하우스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제 위험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이리로 통장’으로 여행 시작

통장에 기록하는 문화관광

익산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리로 MICE(Maryong Iksan City Emerald)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리로 MICE 통장은 익산 전역을 여행하고 인증을 통해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마룡(Maryong)·익산(Iksan)·도시(City)·보석(Emerald)의 약자를 활용해 ‘익산의 보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관광 활성화, 여행객 유치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기존 마이스(MICE) 산업을 재해석해 관광에 적용했다. 마이스는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비즈니스 이벤트를 기획·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역 앞 ‘여행자센터’ 또는 인화동 ‘숨리문화고’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 5,000원을 내면 이리로 MICE 통장과 마룡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축제, 행사, 체험 등 익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현장에서 찍은 도장, 인증사진, 영수증 등을 통장에 기록할 수 있다. 일정 개수 이상 인증을 모으면 마룡 상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시는 이리로 MICE 통장이 여행의 재미와 함께 수집하는 즐거움을 제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신태인농협 콩 종합처리장 준공

정읍시 신태인 지역 콩 재배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대식 콩 종합처리장이 문을 열었다.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희중)은 지난 14일, 신태인읍 우렁리에서 ‘신태인농협 콩 종합처리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임승식 도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도내 농협조합장, 농업인 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콩 종합처리장의 준공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콩 종합처리장은 시 예산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 5,000만원의 사

업을 투입해 888.62㎡ 규모로 조성됐다.

이 시설에는 최신 색채선별기와 입자선별기, 기타 다양한 선별장비가 완비돼 시간당 3톤의 콩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콩 종합처리장의 신축으로, 그동안 생산한 콩을 선별하기 위해 관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하며 위탁해야 했던 인근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애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질 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작업 편의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선제적 안전 점검

배수펌프장 등 안전 이상 무

군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총 8개소의 배수펌프장과 3개의 우수저류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전문업체와 협력해 배수펌프를 실제 가동하며 설비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정

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적 시설 운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시설은 즉시 보수 및 교체 등을 통해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나 만조 시 하천 범람 및 도상 침수 위험 발생에 대비해 인위적인 배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방재시설인 만큼 군산시는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독려

정읍시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투표를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지역 내 23개소에서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 4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읍시 투표율이었던 80.2%를 넘어서기 위해, 다각적

이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주요 거리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청사와 각 읍·면·동 청사에는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또한, 공동주택과 농촌마을 등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청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비롯해 LED 전자 게시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노을대교 2030년 개통 청신호

올해 400억 증액 공병설계·환경평가 추진 내년 착공 최선

고창군과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노을대교'의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오는 203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노을대교 총사업비로 4217억원을 통보받았다. 이는 기존보다 400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등 지역정치권의 노력이 빛났다.

현재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해상대교 제안공병에 따른 세부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부안, 한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단 10분만에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8.86km 길이의 다리를 말한다. 완공 땀 70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5km로 줄어든다. 다리가 놓이면 기존 한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특히 노을대교는 대한민국 해안 관광도로인 KR777 위에 건설된다. Korea777(KR777)는 경기, 충남, 전북,



고창군과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노을대교'의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오는 203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고창군>

전남을 잇는 서해안 관광도로인 국도 77호선과 동해안 관광도로인 7호선을 연결해 명명한 것으로 한반도 바다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통합해안도로를 일컫는다.

디자인이 아름다운 랜드마크 노을대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 노을이 아름다운 관광형 휴게소 대죽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서해안 해안도로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된다.

△고창, 태안반도-목포까지 이어지는 조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

고창은 충남 태안반도와 새만금, 부안 변산, 전남 무안, 목포까지 이어지

는 조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SOC사업 추진 시 직접적으로 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노을대교의 경우 관광형 대교로 건설돼 운영인력과 관련 관광 및 상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노을대교로 인한 해양관광뿐 아니라 내륙 관광자원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간 연대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 획득

공약이행평가단 등 주민소통기반 행정 결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성적표를 받았다.

'2025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전문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사업에 대한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및 검증을 진행한다.

시는 △공약이행 완료 △2024년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인구성장시대 개막(5)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육성(15)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4) △민생경제 자립기반 구축(5) △양질의 일자리 창출(4) △동북아 거점 항만도시 도약(5) △지역사회 인프라 기반 확충(19) △시민소통 자치시대 개막(5) 등 8대 분야 62개 공약을 선정해 주요 공약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공약사항을 투명하게 관

리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등을 운영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 공약 추진 현황과 변경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주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각종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들으며 약속했던 공약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에너지 자립마을 5곳 본격 운영

최대 월 30만원 이익
올해 10여개 마을 추가 조성

고창군이 월 최대 30만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본격 운영한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무장면 송정마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현판제막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우선 선정해 마을창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10여개 마을 총 200kW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협동조합의 통장으로 적립돼 어르신 복지, 마을회관 운영, 마을 행사 등 공동 기금으로 활용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실제로 마을당 설치용량에 따라 월 15~3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송정마을을 비롯한 자립마을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에너지 자립마을의 시작점이 지방소멸 위기를 마을이 주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 이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군수,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독려

마을 방송 등 홍보 주력 “대한민국 미래 바꾸는 결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주요 간부회의를 19일로 앞당겨 42개 과소·읍면장에게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주민들에게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하고 군민들이 가정 내에서도 쉽게 선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및 본 투표 당일 마을방송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정을 알리는 안내판을 들고 군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군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부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

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부안 투 투표율이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투표율 1위가 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군은 선거일까지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한밤’ 6월 여행자 20팀 지원

6월27일까지영수증인증시
최대 10만원차등지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여행경비 지원사업 ‘고창한밤’이 6월 여행자 대상 경비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총 20팀(선착순)을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전 네이버폼을 이용해 여행 일정을 공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창한밤은 1박 이상 고창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후 영수증과 간단한 인증을 통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6월에는 총 20팀에게 여행 경비 최대 1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참여자는 여행 일정 사전 공유, 숙박 등 간단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정산 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

고창한밤

고창한밤이란?

고창한밤은 고창군에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에게 숙박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2025. 6. 1일부터 6. 27일까지 고창군에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

지원금액: 1박 2일 숙박객 10만원, 1박 1일 숙박객 5만원

신청방법: 고창한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신청처: 고창한밤 홈페이지 (www.gochanghanbam.com)

문의: 020-4874-1553 | 이메일: gochanghanbam@naver.com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발굴

6월 5일까지 품목·업체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 선호도 제고를 위한 특색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자 오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 △가공식품 △생산·제조품 △관광 및 체험서비스 등이다.

신청대상은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체로서, 해당 답례품의 생산 및 보관시설을 갖추고 적시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를 거쳐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과 상품 우수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답례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면서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신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향토문학상, 김영렬·신대철 시인 선정

(사)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 (지부장 김황곤 시인)는 제4회 부안향토문학상 수상자로 김영렬 시인과 신대철 시인을 선정했다.

부안향토문학상은 (사)한국문인협회 부안지부가 향토 문학 발전에 기여한 부안 문인들의 자긍심과 문학창작의 욕을 부여하고자 2022년부터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김남근 시인(전북예총고문)을 심사위원장으로, 소재주 시인(신아문예 지도교수)과 안도 시인(평론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한 가운데 문학상 공모로 추천된 20여명의 후보 중 최종 수상자 2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렬 시인은 2010년 '지구문학' 신인상(시 부문) 수상과 함께 등단해 부안문인협회 제 9~10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안문

김영렬

김영렬

김영렬은 195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났다. 1976년 전북대학교 문예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문예'에 '첫사랑'으로 등단했다. 대표작으로는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 등이 있다.

신대철

신대철

신대철은 195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났다. 1976년 전북대학교 문예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문예'에 '첫사랑'으로 등단했다. 대표작으로는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 등이 있다.

김제시,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로운 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물주소판은 버스정류장, 전기차 충전소 등 주소부여가 어려운 곳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 사물에 부여한 주소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물로,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 및 내비게이션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

김제시,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로운 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물주소판은 버스정류장, 전기차 충전소 등 주소부여가 어려운 곳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 사물에 부여한 주소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물로,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 및 내비게이션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

제708회 지평선아카데미, 22일 최성에박사초청'부부소통' 강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708회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는 2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심리학계의 권위자이자 수많은 가정의 관계 회복을 도와온 최성에 박사가 '부부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부부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깊은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최성에 박사는 감정코칭, 회복탄력성, 공감대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로,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최성에 박사의 행복 수업'등의 저서가 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닌, 부부가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하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관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싶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청정자연속 특별한 걷기 문화 고창군, 고아웃슈퍼하이킹성로

'제4회 고아웃 슈퍼하이킹 고창편'이 '함께 또 같이'를 모토로 지난 17~18일 선운산 도립공원과 고창갯벌, 명사십리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고아웃 슈퍼하이킹은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출발해 명사십리 일원까지 총 18.8km의 코스를 걸었다.

국가대표를 지낸 국내 유수의 하이커들이 트레일 러닝 입문자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메인 후원사인 아디다스 테렉스 트레일 러닝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도 주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약 6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탁 트인 명사십리 해안선을 따라 서해라길 41코스를 걷는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고아웃 슈퍼하이킹은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고창의 숨은 보물 같은 자연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전문 하이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이킹 체험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죽산면 이웃사랑전기연구회, 전기안전점검봉사활동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9일 이웃사랑전기연구회(회장 강동귀)가 매월 둘째 주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찾아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사랑전기연구회는 총 3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김제시 전역을 돌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택의 불량 전기설비 교체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죽산면에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회 봉사활동을 실시해 100여 세대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을 받은 한 주민은 “전기는 잘 알지 못해 수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셔서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보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웃사랑전기연구회 강동귀 회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취약계층 세대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 공동체 중심 ‘마을풍경’ 새롭게

마을경관개선사업 설명회 13개 읍면 대상 사업 안내 마을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마을경관개선사업 - 함께 만드는 마을풍경’ 사업설명회가 20일 오전 10시에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완주군 내 13개 읍·면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참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경관개선사업 - 함께 만드는 마을풍경’ 사업은 완주군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체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의 사각지대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고 마을 고유자원과 연계한 경관특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2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목적과 배경을 시작으로, 마을이 제출한 신청서류, 선정 기준, 추진 일정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특히 지원 가능한 경관개선 유형(예:벽화, 마을소개게시판, 마을정원 등)과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

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마을공동체는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경관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조준모 센터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는 주민 주도의 마을경관개선사업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라며, “문화적 접근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발효테마파크, 온가족 체험 ‘인기몰이’

과학·놀이·휴식 융합 콘텐츠 놀이터·식물원·속소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체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발효여행 순창을 주제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교육과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약 44만 5천㎡의 넓은 대지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발효 종합 문화공간이다.

발효테마파크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 과학, 놀이가 융합된 융복합 체험 공간으로서 주말마다 광주와 수도권 등지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발효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 천국’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다.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인 ‘콩이관’ 1층에서는 피트니스, 사이클 시뮬레이션, 암벽등반, 디디엘 등 4차 산업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어린이와 청



‘순창발효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체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순창군>

소년 모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 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콩이관’장독대 형상의 놀이터와 발효의 3요소(바람·빛·물)를 활용한 과학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효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미생물의 세계 속 마술사가 돼 보는 놀이체험존 ‘팡이관’과 50여 종의 아열대 식물이 가득한 ‘다년생식물원’에서는 자연 속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

를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특히, 테마파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숙박 및 여가시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어린이용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 등을 갖춘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개장한 ‘천웨이 글램핑장’은 주말마다 조기 예약 마감이 이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마을 도시재생, 주민 손맛으로 ‘물꼬’

도량마을 ‘골목주민 솜씨자랑’ 마을 반찬가게사업 기반 마련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량마을’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금동 14통 일원에서 ‘골목주민 솜씨자랑’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의 고유한 손맛을 발굴하고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축 예정인 도량마을 활력센터에서 운영될 반찬가게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행사 역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돼 도량마을만의 색이 담긴 축제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주민 먹거리 솜씨 경연



17일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동 14통 일원에서 ‘골목주민 솜씨자랑’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남원시>

▲축제음식(잔치국수, 해물파전, 조개무침) 나눔 ▲압파부채 만들기 체험 ▲로컬푸드 음료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지역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금동 도량마을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아동돌봄 거점센터’ 설립 순항

‘우리마을 365돌봄 거점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완주군 체계적인 아동돌봄을 위해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우리마을 365돌봄 거점센터’ 조성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의 일환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추이와 돌봄 현황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용역이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등 공적돌봄 서비스의 돌봄 틈새(방학 중·긴급·일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농복합도시 완주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형, 농촌형 거점센터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돌보는 365돌봄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가 완주군 아동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7일 ‘마을로 가는 마을여행’을 주제로 한 순창 MAMA투어 3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순창 MAMA투어 ‘초여름 정취 가득’

자연 속 체험…3회차 성료 6월 중 풍산면 일대 진행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7일 ‘마을로 가는 마을여행’을 주제로 한 순창 MAMA투어 3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순창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유촌마을 탐방으로 시작해, 민간정원 초연당 산책, 섬진강 자전거길 트레킹, 그리고 보물찾기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걷고, 타고,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자연에 맡기는 여정을 경험하며 순창의 매력을 깊이 있게 체험했다. 투

어 마지막에 진행된 보물찾기 이벤트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유쾌하게 마무리됐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윤숙 대표는 “MAMA투어는 관광객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마을과 자연, 사람을 마주하며 마음을 쉬어가는 여행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창만의 색깔 있는 여행 콘텐츠로 더 많은 분들을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 MAMA투어는 연중 총 8회 운영되며, 다음 투어는 6월 중 풍산면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지역작가展 3번째 전시

윤대라 작가 색다른 설치미술 ‘양생원과 비키니소다’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윤대라 작가의 ‘양생원과 비키니소다’ 전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지역작가 전의 3번째 전시로 윤대라 작가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이야기한다.

전시의 주제인 양생원과 비키니소다는 작가의 예술 속 캐릭터로 두 캐릭터의 상호작용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설치미술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관람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품이 구성됐다.

한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올해의 지역작가 6명을 선정해 2개월씩 전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그 세 번째 전시로 향후 연말까지 박진영, 김성민, 백금자 작가의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내달 20일까지 일제 정리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처분

남원시는 이달 9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일제 정리 기간에 총체납액의 24%인 1,125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실익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체납자 실태조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며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전제 체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

로 시행하며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위탁아동 기념일 쟁긴다

‘기념일 찾아주기’ 사업 운영 몽키리코 봉돌점 후원 동참

완주군이 가정위탁아동들의 기념을 쟁겨준다. 군은 아동 57명을 대상으로 ‘기념일 찾아주기’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친부모의 부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케이크를 선물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동의 일상을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매월 생일 및 기념일을 맞는 가정위탁아동 전원에게 아동보호전담요원

이 생일 전날 또는 당일 대상 가구를 방문해 케이크와 축하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봉동농협 하나로마트 내 위치한 몽키리코 봉돌점(대표 정하진)이 지속적인 후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진행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고,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100여 아동의 개별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양육상황 점검 및 원가족과의 면접 교섭,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 학부모회 급식실 냉장고·냉동고 기증

순창군 옥천인재숙 학부모회(회장 최용석)가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와 냉동고를 기증했다.

기탁식은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순창군 관계자 3명과 학부모회 4명 등 총 7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6칸 업소용 냉장고 1대와 ▲2칸 보존형 냉동고 1대로, 총 500만 원 상당이다. 학부모회는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기증을 결정했다.

최용석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모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양해춘 (주)남신레미콘 회장 춘향장학재단에 1천만원 기탁

주식회사 남신레미콘(회장 양해춘)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9일 춘향장학재단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

양해춘 회장은 지난 2002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누적 기탁 금액은 총 5,300만원이다.

양회장은 춘향장학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지역 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으며, 꾸준히 장학사업에 참여해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탁식에서 양 회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위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춘향장학재단 이사장(남원시장)은 “양해춘 회장의 꾸준한 나눔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뜻깊게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춘향장학재단은 지역 출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하절기 집중 방제 이른 모기 활동 선제 대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기후 변화로 인해 모기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에 따라 하절기 방역도 이에 선제 대응하고자 방제 시기를 앞당겨 5월 중순부터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하수구, 관광지 등 유충 해충 취약지역에 본격적인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해빙기부터 동절기까지 연중 유충구제를 실시해 모기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동지역(공원, 주택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일일모기발생 감시장비(DMS)를 활용해 모기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모기서식지, 생활근거지, 취약지 등에 적합한 맞춤형 근거중심 방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는 친환경 방역을 위해 WHO 독성 분류 등급 중 가장 낮은 ‘U등급’약품을 사용하고, ‘연막소독(경유에 살충제 희석)·방식 대신 연기가 없는 ‘연무소독(물에 살충제 희석)·방식 위주로 방역을 실시한다. 읍면지역과 축사, 풀숲, 시가지 하수구 등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인물 없애기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밖은 긴 옷 입기 및 야외활동 후 샤워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쓰담쓰담 플로깅' 봉사활동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 정화 봉사활동 '쓰담쓰담 플로깅'을 실시했다. '쓰담쓰담 플로깅'은 걷기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국립군산대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룡동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정화에 나섰다.

/최성민 기자



완주군 구이면지사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학비 지원

완주군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호순, 최은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명에게 학비 지원금 11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근 진행된 전달식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학비 지원금 대상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구이중, 태봉초, 청명초, 구이초, 대덕초 5개 학교의 학생들이다.

/원주=김명곤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 여성 청소년에 보건위생용품 150박스 지원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9일, 군산시 관내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세트 150박스(약 45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기탁은 전북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딸에게 보내는 선물'의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세트는 보건위생용품 6종과 찜질팩드, 파우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대병원-부냐키리에수병원 국제 보건의료 협력 체결

의학교육·연구·환자진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부냐키리에수병원(대표 최관선)과 '국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대병원 본관 3층 온고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학교육, 의학연구, 환자진료 등의 영역에서 공동 발전

을 도모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국제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부냐키리 예수병원(Bunyakiri Yesu Hospital)은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부냐키리 지역에 있는 의료 선교 병원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지원과 함께 선교 활동을 지속하며 현지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행사' 개최

남원제일고 학생들 참여

남원시는 지난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향교(전교 김시열)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했다.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의미있는 날이다.

이번 전통 성년례에는 남원향교 유림을 비롯해 성년례를 체험하고자 하는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생들

과 각 기관·단체 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학생(관자) 20명, 여학생(계자) 20명의 성년자가 전통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과 비녀를 착용한 채,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순으로 엄숙한 예식을 치렀다.

행사에 참석한 남원시관계자는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청춘을 응원한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어르신 '한마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정읍지회(지회장 최판규)는 지난 17일, 정읍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 어르신,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니날 큰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고고장구 공연과 유쾌한 품바 공연이 펼쳐져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

션을 달아드리고, 자녀와 보호자들이 준비한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함께 상영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판규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편안한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우리 장기요양기관들이 최일선에서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굿네이버스-전북청년경제인협, 돌봄공백사업 후원

전북청년경제인협회와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찬지원 및 돌봄공백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회장 오만호)는 전북권역 청년기업의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지역사회 내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단체이다.

김미선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장은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는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라며 "전북청년경제인협회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김제시 성덕면지사협, 저소득층에 '사랑의 장류 나눔'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양경철)가 19일 관내 저소득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장류 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했다

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장류(된장, 고추장 등)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된 장류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정성과 함께 전달했다.

양경철 민간위원장은 "이웃을 위한 나눔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산업안전보건협회, 정읍시에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정읍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산업안전보건협회(대표 신소영)는 19일,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신소영 대표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정읍의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키우며 학업에 전념해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결혼]

김민수 (김상기·백은정 차남)
정지혜 (정재윤 완주군청 경제산업국장·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녀)

일시 :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더케이 웨딩홀 4층
(전주시 완산구 온고로로 1)
연락처 : 010-4216-7957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희망 합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을 존중 합시다



전북타임스 캠페인

〈一事一言〉



희대의 더블 쿠데타, 사회적 함암 치료의 기회!(完)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처럼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 즉 5.1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와 '조희대(사법 쿠데타) 특검'이다.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으로 선언되고 탄핵되었듯이, 조희대의 대법원 판결 역시 중차대한 절차상 하자, 그리고 내용상 하자를 안고 있기에 해당자들(지쿠엔, 심우정, 조희대 등)을 탄핵하고 '5.1 대법원 판결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일 분, 일 초가 급하다.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고법 재판이 최소한 5년간 연기되고 사실상 무효 결정될 것이지만 결코 안심할 순 없다. 여차하면 실효성 있게 전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란 세력들은 기존의 '합리적' 상식과 관행을 완전히 짓밟아 왔음을 기억하자.

둘째,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법원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원은 물론,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 360명이 5개 분야별로 하급심들의 '범리 적용' 검토를 한다. 우리의 경우도 지금보다 10~20배 늘리면 좋겠다. 한편, 안 그래도 권력을 집중 장악한 대통령이 중요 재판관들의 추천까지 상당수 독

점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없애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3권 분립에도 맞지 않다. 내 생각엔 각급 법원장과 검사장,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평판사회의 내지 평검사회의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인물로) 직접 선출하면 좋겠다. 만일 그것도 '집단 이기주의' 등 결함이 생긴다면, 사법 민주주의에 대해 일정한 소신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절반 이상 참여, 선출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사회 정의 때문!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군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판검사(법원과 검찰)라는 사회적 제도에 최종적으로 기밀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적 제도가 공신력이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앞서도 살핀 바,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인 사법부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해야 비로소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 역시 뿌리를 내린다.

셋째, 지금까지 경험한 바, 윤석열의 정부, 심우정의 검찰, 조희대의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커녕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이재명의 민주당과 야당이 제도적인 희망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검찰과 법원이 그 어떤 모습을 보여더라도 진정한 변화의 에너지는 민주주의를 간절히 염원하는 풀뿌리

민초들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가 기관들이나 그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두 국민 내지 풀뿌리 민초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참고로,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근에 '반헌법적 조직'으로 지정돼,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만일 국가나 공직자들이 풀뿌리 민초들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며 자기들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민초들은 언제든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1980년대 전두환 식 통치 방식이 3S(스크린, 스포츠, 섹스)였다면 21세기 풀뿌리 민초들의 무기는 그와는 전혀 다른 3S(사운드, 스탠드업, 솔리더리티)일 것이다. 즉,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 내기(Sound),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기(Stand-up), 서로 손잡고 굳세게 나아가기(Solidarity)다. 참된 민주주의는 바로 이 3S와 함께 간다. 조희대 등의 '희대의 사기 판결' 절차(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사유화, 사법의 내란화)에 저항, 전국의 시민들이 단 2~3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도 바로 이 3S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가는 한, 우리는 아무리 험한 길도 즐겁게 걸을 수 있다. 바로 이 행동하는 민주적 과정들(3S)이야말로 중독 개인, 중독 조직, 중독 사회를 제대로 치유하고 넘어서는 지름길이 아닐까? 지옥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듯, 일련의

쿠데타 속에서 우리는 해묵은 사회적 암세포들을 제대로 도려낼 기회를 발견하는 중이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적 '경청 투어' 중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은 사법살인 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외쳤다. 전국에 수백, 수천 만 민주 시민들이 생동하는 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진보·양심 세력이 함께 새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몇 년 뒤, 한국의 정치 및 사법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걸 보고 싶다. 남녀노소, 매일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그려본다. 같 같은 협해도, 가슴이 설렌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미래차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야

전북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구조를 과감히 벗고 미래차 중심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생태계로 재편하는 것은 전북이 자동차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미래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전기 자동차 시장은 2023년 709억 달러에서 2029년 2천556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장도 같은 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를 안긴다. 전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차 8천800대를 보급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2027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혁신하는 일이다.

그 핵심에는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가 있다. 새만금산단에 들어선 이 센터는 도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의 상용화와 공동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개발만큼 중요한 부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성능 시험과 폭발 테스트를 통한 인증 기반도 준비 중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 같은 노력이 하나씩 실현될 때 전북의 산업 체질은 단단하게 바뀔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전기트럭과 버스를 완주·군산 지역에서 양산체제를 확대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제조기지를 넘어 전북이 미래 상용차 생산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실증기반 역시 새만금 상용차 주행시험장과 10.5km 자율주행 특화도로 운영을 통해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수소 상용차 실증 인프라 구축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투자도 병행되고 있어 미래차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 전북의 미래차 산업 전환이 단순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모텔'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R&D와 실증 중심의 국가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인력 양성과 기술 내재화를 위한 기반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 지자체가 함께 땀 때 전북의 변화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이룰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북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의 산업 생태계 전환은 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절박한 과제다. 전북이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지역사회의 역동적인 노력이 함께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의시

그리운 남쪽 / 박재구

그곳은 어디인가
바라보면 산모퉁이

눈물처럼 진달래꽃 피어나던 곳은

우리가 매듭 붉은 손을 모아

여여여 여여여 부르던

여여여 여여여 눈물 섞인 구름으로

피땀한 울음들이 되살아나는 그곳은

돌아보면 날 저물어 어둠이 깊어

홀로 누워 슬픔이 되는 그리운 땅에

오늘은 누가 정 깊은

저 뜨거운 목마름을 던지는지

아느냐 젊은 시인이여

눈뜨고 흰피 보이는 백일의

이 땅의 어디에도

가을바람 불면 가을바람 소리로

봄바람 일면 푸른 봄바람 소리로

강냉이 꽃고추

눈 속의 겨울 애벌레와도 같은

죽지 않는 이 땅의 서러운 힘들이

저 숨죽인 그리움의 밀몰소리로

우리 쓰러진 가슴 위에

피어나고 있음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씨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독자광장

다시, 대한민국



1894년 11월, 우금치. 흑한의 추위 속에서 전봉준 장군이 지휘하는 동학 농민혁명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에 둘러싸였다. 1차 봉기 때와 달리 인식 총포로 무장한 연합군에 비해 농민군은 화력 면에서 크게 열세에 있었으므로, 개혁에 대한 열망만으로 전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반봉건과 반외세를 기치로 일어난 농민의 꿈은 그해 겨울,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쓰러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실로 모든 계절이 겨울이었다. 민주적 질서는 무너지고, 정치 갈등은 날로 첨예해져만 갔다. 2021년 10위에 자리했던 국가별 GDP 순위는 12위로 두 단계 하락했으며, 1,200원을 넘지 않던 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무섭게 치솟았다. IMF 때 같다,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탄식은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와 그에 대한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유·무형의 신뢰 자본을 크게 훼손했다. 발전 동력을 상실한 사회는 점차 얼어붙어 갔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방기했음에도 자리를 보전하

는 데 급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리스 신화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스스로의 파멸을 앞당겼다.

계엄의 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선명한 기억으로 남았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놀란 시민들은 즉시 국회로 달려 나왔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인과 장갑차의 진입을 막아내는 사이,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가까스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이후로도 얼마나 지난한 과정들을 견뎌내야 했는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2024년 12월, 남태령. 전봉준 장군의 이름을 잇는 시위대가 트랙터를 이끌고 서울로 향했다.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호남과 영남에서 상경하던 행렬은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버스 차벽에 가로막혔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태령의 겨울밤은 길고 무거웠다. 마치 1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금치 고개가 현대에 재현된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그때와 달랐다. 시위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시민들이 가세해 함께 밤을 지새웠다.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차벽이 열렸고 시민들은 승리했다. 민주주의의 꿈은 남태령 고개를 넘어 광장으로 향했다.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기까지 120여 일 동안

광장의 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응원봉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3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억눌려 왔던 여러 문제들이 일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던 진영 논리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아 서부지법 점거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헌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을 수 차례나 내림으로써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의 무대에서 내려왔음에도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람들은 이제 탄핵 국면이 지나갔으니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통합을 위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역자 청산을 주장하며 '어제의 범죄를 발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통합된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으므로, 통합은 내란의 종식과 치유보다 우선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의견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통합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의 시간이 움직이려 한다. 예기치 않게 다가온 조기 대선 정국에서 차기 정부는 100조 원에 달하는 나라빚과 더불어 사회 개혁, 국민 통합과 같은 어려운 숙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세계는 바쁘게 움직여 왔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고,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여 부상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하루 빨리 발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한민족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던 저력을 지니고 있다. 130년 전에는 넘지 못했던 개혁의 고개도 끝내 넘어서 보이지 않았던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조금 빠르게 돌아왔다. 대한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기다린다.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

농생명·국제산악관광도시 꿈꾸는 장수

장수군 3년간의 도전과 변화...역사, 새로 쓴다

‘장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오래 산다는 뜻의 ‘長壽’일까, 아니면 고품질 사과와 한우 등 레드푸드로 이름난 농산물의 고장일까.

인구 2만 500명의 멀고 조용한 농촌으로만 인식되던 장수(長水)가 지난 4월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내 기초지자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80여개 군(郡) 지역 중에서 4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인구 65만의 전주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을 지나는 장수군은 끊임없는 행정 혁신과 도전,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분명하게 변화의 궤적을 그려왔다.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 추진 방향에 맞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을 목표로 장수군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꿈꾸고, 찾아가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며 지역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장수군의 도전과 변화의 발자취를 함께 되짚어보자.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리며 이제는 한 번쯤 가고 싶은 ‘명소’로

과거 장수군은 관광지로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장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장수는 한 걸음씩 ‘여행의 목적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천국’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수누리파크’를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과 그 일대의 뜬봉샘 생태공원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또 전국 8대 명산 중의 하나인 장안산의 역사숲은 넓게 확장됐다.

여기에 ‘장수트레일레이스’ 성공적 개최는 장수를 관광지로 주목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특히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에 ‘한국의 샤모니’라는 별칭을 안겨주며, 장수를 산악 스포츠의 성지로 부상시켰다.

수치 또한 이러한 흐름을 증명한다. 2021년 24만 명이던 연간 관광객 수는 2024년 84만명으로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찾아지며 지역과 주민들은 생기를 되찾고 있다. 정적이 흐르던 마을길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었고, 이제 장수는 1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 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을 넘어 ‘자주 찾고 싶은 곳’으로 성큼 나아가려고 한다.

과감한 행정 혁신과 성과로 증명된 변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도전을 겁내지 않고 장수군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실화하고자 행정 시스템 전반에도 과감한 혁신이 이어졌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은 조직문화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그 결과 지난해 전국 군단위 적극행정 평가 1위(최우수)를 기록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25년에는 3년 연속 ‘적극행정 및 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증명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지구온난화는 농업에도 예외 없는 위기를 안겼다.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업은 불확실한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수군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스마트 과원, 저탄소 한우, 스마트 팜 등 미래형 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나아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도 조성해 농가들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사는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다. 장수군은 최근 그 이유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북 최초로 유치한 ‘전북형 반향주택 100호’는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며 주민들의

장수누리파크·뜬봉샘 생태공원·장수트레일레이스 등 장수군 매력 알려
과감한 행정 혁신과 성과 3년 연속 ‘적극행정 및 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스마트 과원·저탄소 한우 등 미래형 농업 기술 도입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인터뷰〉최훈식 장수군수



“매사 행정 수요자인 군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한다”며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혁신적인 리더십 또한 장수군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적을 일군 배경이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최훈식 군수에게 임기 중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을 물어봤다.

최 군수는 “장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특별한 목표입니다. 장수군수 당선 당시 군민들과 처음 가졌던 약속과 다짐을 가슴에 되새기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며 “특히 저는 농업이 미래의 ‘블루오션’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장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수의 지리적, 기후적 강점을 살려 산악관광과 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장수를 만들고 싶습니다”고 답했다.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농촌보금자리 30호’, ‘농촌체류형복합단지 20호’ 등 사업도 공모에 선정돼 청년들의 귀촌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생활 속 복지도 놓치지 않았다. 군민들이 새로운 레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번암, 장계를 시작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난방비용을 대폭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촌협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읍·면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같이 달렸던 땅, 이제는 남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장수는 전체 면적의 75%가 산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산악지역이다. 한때는 그 지형이 장수의 한계로 귀결돼 타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교통지도가 바뀌면서 지리적 한계가 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익산-장수 고속도로 2개가 교차하는 이곳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잇는 남부권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여기에 천천하이패스IC가 2026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전주·진안군과 연결되는 국도26호선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반영돼 현재 예타 중에 있다.

그리고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장수는 교통망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장수’는 이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지난 3년의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위에 탄탄한 미래를 설계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농생명·국제산악관광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힘 없이 걸어갈 것이다.

/장수=최진수 기자